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10. 27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송민아	☎ 760-745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노균병 · 시들음병에 강한 브로콜리 신품종 개발 속도

- 분자마커 분석으로 시들음병 · 노균병 저항성 유망 유전자원 5계통 선발 -
- 2030년 신품종 개발 목표...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생산 기반 마련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브로콜리 신 품종 개발을 위해 유전자원 108계통을 분석해, 시들음병과 노 균병에 저항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망 유전자원 5계통 을 선발했다.

○ 제주는 전국 브로콜리 재배면적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국 내 최대 주산지다.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병해 우려가 커지면서 병에 강한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.

□ 이번 연구에서는 분자마커* 4종으로 병저항성 관련 유전적 특 성을 분석했으며, 선발된 5계통은 모두 시들음병과 노균병 저 항성 판별 마커에서 저항성 반응을 보였다.

* 분자마커(Molecular Marker): 식물의 DNA로 병에 강한 특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하는 표지(시들음병: MTK-C, FocBNU / 노균병: UBC359, BoGMS0624)

○ 선발된 계통은 재배시험으로 실제 병 저항성과 상품성을 검 증한 뒤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 소재로 활용한다.

○ 농업기술원은 2030년까지 시들음병과 노균병에 강하고 상품 성이 높은 브로콜리 신품종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간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앞서 1월 검은무늬병에 강하고 상품성이 높은

브로콜리 2계통을 선발했으며, 2029년 조생종 신품종 출원을 목표로 재배시험을 하고 있다.

-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이번 연구로 브로콜리 병저항성 품종 육성에 활용할 유전자원을 확보했다” 며 “기후변화에 대응해 병에 강하고 상품성을 갖춘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” 고 말했다.